

金進士催遊歌라



[해제]

<김진사최유가라>는 앞뒤 표지가 없는 전적(典籍) 형태의 필사본으로 작자는 미상이며, 필사자 또한 미상이다. 줄글 형태로 단아하게 국한문혼용체로 필사하였다. 현재 한국가사문학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작품의 제목은 김진사더러 어서 빨리 놀러가자고 권유하는 뜻을 담고 있다. 작품 말미에서 ‘시화연풍 이런 때에 아니놀고 무엇하리/조선삼백이십팔주 간곳마다 태평이라 놀고 놀아보세’에서 보듯이 인생은 한번뿐인데, 태평시절에 전국을 주유하며 놀아보자고 권유하고 있다. 작품 앞에는 주나라 무왕이 나라를 세운 옛 고사부터 시작하여 중국의 역대 인물들의 주요 행적으로 나열하면서 이들이 비록 영웅이요, 미인이라고 하지만 한번 뿐인 인생 그 이상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인생무상을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 끝에 이어지는 문구는 <김진사최유가라>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求忠臣於孝子之門 충신은 효자집안에서 구할 수 있으며/ 教忠孝無二致 충과 효는 두 이치 아니라고 교육하며/ 避色如避讎 색피하기를 원수 피하기처럼 하며/ 避風如避箭 바람 피하기를 화살 피하기처럼 하며/ 懲憤如故人 분함 누르기를 옛사람처럼 하며/ 窒慾如防水 욕심 누르기를 물막듯이 하며/ 如此則禍不及身 이와같이 하면 화는 곧 내게 미치지 않으리라’라는 구절은 주희(朱熹)의 『근사록(近思錄)』에 나오는 구절과 유사하다. 아마도 필사자가 인생에 대한 교훈을 담은 내용을 나중에 따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원문]

金進士催遊歌라

周武王의 어지人君 八百年 基業우의
 殿下에 일으어씨되 八千歲 나바니덤
 昨년도 豊年이요 今年도 豊年이라
 天無烈風 淫雨하고 海不揚波 ㅎ것구라
 흐我烝民 百姓더라 어셔가고 疇비가자
 敦化門에 어진詔書 漢文帝 詔書신가
 草木羣生 질거음도 이도쏘흔 聖化노다
 長安靑樓 少年더라 挾彈飛鷹 ㅎ는이와
 太平歌 仔壤歌로 이니스래 드어보소
 어제靑春이라 오늘白髮인디 更少年 어이ㅎ리
 蒼海一粟 우리人住 後悔흔덜 어이흘가
 章培에 노는계집더라 네숫도타 자랑마라
 西山에 지는해을 뒤라셔 자불소야
 東海로 흘으는물리 다시오기 어엽쏘다
 뒤東山 지는숫선 明年三月 다시피되
 울리人生 한번 늘거지면 다시접기 어엽쏘다
 洛陽城 十里外에 놓나진 저무덤은
 英雄豪傑 멋멋치며 絶代佳人인 며머친가
 憂樂中分 未百年에 少年行樂 片時春은
 歷歷키 들어보소 堯舜禹湯 文武周公
 孔孟顏曾 程朱夫子 道德이 貫天하고

萬古聖人 일러시되 么麼한 後生더은
이물일러 무엇홀이
그나운 英雄 낫낫치 알고보니
萬里長城 든장삼고 億萬世 비게거라
六國 朝貢하고 三千宮女 侍衛홀제
三神山 열교멀다 願흔빅 不死藥은
童男童女 五百人이 消息도차 寸절하고
沙丘平垓 저문날에 驪山靑草 속절업다
牛山에 지는히는 齊景公의 눈물이요
汾水에 秋風曲은 漢武帝의 실품이라
不祥하다 龍逢比干 萬古忠臣 그안인가
忠官直諫 씩씩업서 주검도 차목하다
伯夷叔齊 千古名節 게안닌가
首陽山 집푼골의 採薇曲을 지어두고
黃石公 姜太公 司馬讓苴 孫臏
吳起戰必 勝功必取 用兵如神 ㅎ야시되
못친흔는 閻羅國은 흥변죽음을 못면한다
綿山의 도라드니 介子推의 무덤이요
三江의 썩닌潮水 伍子胥의 貞節이며
汨羅水 지품물의 屈三閭의 忠魂이요
말잘흔는 蘇秦張儀 六國諸侯을 다친흔되
閻閻왕을 못친하야 杜鵑聲 紉雨中的
魂魄도차 울어잇다 信陵君의 竊符矯命과
孟嘗君의 鷄鳴狗盜 戰國時 豪傑이라
三千食客 어티두고 黃山細雨 지푼골의
一坏土가 可憐하다 力拔山 楚霸王은
天下壯士 일너시되 時不利 騅不逝라
八千兵 혀터지니 虞美人 솟목잡고
눈물노 ㅎ직하며 烏江風浪 愁雲中에
七十餘戰 可笑웁다 運籌帷幄 張子房과
東南風비던 諸葛孔明은 天文地理 萬古造化을
푼어신되 絶통하다 함번주검 몬면하고
可馬迂 韓退之되 李太白 杜子美은
第一文章 일러시되 長生不死 못ㅎ앗고
獨行千里 關雲長은 名振天下 ㅎ야서라
거록하다 明燭達朝 千秋大節 쏜이로다
長板英雄 張益德은 范強손의 죽단말가
외만타 魏王曹操 唐突하다 吳王孫權

三分天下 紛二中의 너도또흔 英雄이라
銅雀埜 右頭城의 靈魂이 지최업고
富春山 도라드니 嚴子陵 간곳업고
赤壁江 구버보니 蘇子瞻 어딴간고
晋處士 陶淵明은 집터만 남아잇고
金谷의 石崇이은 富者中의 웃씀이되
一生一死 限乏잇서 돈으로 못사라니고
越西施 楊貴地과 王昭君 虞美人은
先千年 後千年의 萬古絶色 일너시되
玉態花容 고은얼골 塵土中의 무쳐잇서
秋雨梧桐 葉落時의 靈魂이 실패올며
八百年 彭祖壽와 三千甲子 東方朔은
彼一時 此一時라 주거지면 구만이요
安期生 赤松子은 東海上 神仙이라
귀로만 들엇제 누의노 못본지라
天地도 開闢호고 日月도 晦明커든
호물며 우리人生 한번뎛엄 흘수업다
春花紅葉 落時에 岁月도 덧업쏘다
時和年豊 이런씩에 안이늘고 무엇홀리
朝鮮三百 二十八州 간곳마닥 太平이라
롤고롤라보시
求忠臣於 孝子之門 教忠孝 無二致 이니라
避色을 如避讎호고 避風을 如避箭호라
懲憤을 如故人호고 窒慾을 如防水호라
如此則禍 不及身호니라

[현대역]

金進士催遊歌라

周武王(주무왕)의 어진 人君(인군) 八百年(팔백년) 基業(기업) 위에
 殿下(전하)에 이루었으되 八千歲(팔천세) 나바늬덥
 昨年(작년)도 豊年(풍년)이요 今年(금년)도 豊年(풍년)이라
 天無烈風(천무열풍) 淫雨(음우)1하고 海不揚波(해불양파)2 하겠어라
 我烝民(아증민)3 百姓(백성)들아 어서가고 바빠가자
 敦化門(돈화문)에 어진 詔書(조서) 漢文帝(한문제) 詔書(조서)신가
 草木羣生(초목군생) 즐거움도 이도 또한 聖化(성화)로다
 長安靑樓(장안청루) 少年(소년)들아 挾彈飛鷹(협탄비응)4 하는 이와
 太平歌(태평가) 擊壤歌(격양가)5로 이내 소리 들어보소
 어제 靑春(청춘)이라 오늘 白髮(백발)인데 更少年(갱소년)6 어이 하리
 蒼海一粟(창해일속)7 우리人生(인생) 後悔(후회)한들 어이 할까
 章台(장대)에 노는 계집들아 네꽃 좋다 자랑마라
 西山(서산)에 지는 해를 뒤라서 잡을소나
 東海(동해)로 흐르는 물이 다시 오기 어렵도다
 甞東山(동산) 지는 꽃은 明年三月(명년삼월) 다시 피되
 우리人生(인생) 한번 늙어지면 다시 젊기 어렵도다
 洛陽城(낙양성) 十里外(십리외)에 높낮은 저 무덤은
 英雄豪傑(영웅호걸) 몇몇이며 絶代佳人(절대가인)인 몇몇인가
 憂樂中分(우락중분) 未百年(미백년)8에 少年行樂(소년행락) 片時春(편시춘)9은
 歷歷(역력)히 들어보소 堯舜禹湯(요순우탕)10 文武周公(문무주공)11
 孔孟顏曾(공맹안증)12 程朱夫子(정주부자)13 道德(도덕)이 貫天(관천)하고
 萬古聖人(만고성인) 일럿으되 么麼(요마)14한 後生(후생)들은
 이말 일러 무엇하리
 그 남은 英雄(영웅) 날날이 알고보니
 萬里長城(만리장성) 단장삼고 億萬世(억만세) 비계거라
 六國(육국) 朝貢(조공)하고 三千宮女(삼천궁녀) 侍衛(시위)15할제
 三神山(삼신산) 멀고멀다 願(원)한 바 不死藥(불사약)은
 童男童女(동남선녀) 五百人(오백인)이 消息(소식)조차 돈절16하고
 沙丘平垓(사구평대) 저문 날에 驪山靑草(여산청초) 속절없다
 牛山(우산)에 지는 해는 齊景公(제경공)17의 눈물이요
 汾水(분수)에 秋風曲(추풍곡)은 漢武帝(한무제)의 슬픔이라
 不祥(불상)하다 龍逢比干(용방비간)18 萬古忠臣(만고충신) 그 아닌가
 忠官直諫(충관직간) 쓸데없어 주검도 참혹하다
 伯夷叔齊(백이숙제)19 千古名節(천고명절) 게 아닌가
 首陽山(수양산) 깊은 골의 採薇曲(채미곡)20을 지어두고

黃石公(황석공)21 姜太公(강태공)22 司馬穰苴(사마양저)23 孫臏(손빈)24 吳起(오기)25
 戰必勝功必取(전필승공필취)26 用兵如神(용병여신) 하였으되
 못친하는 閻羅國(염라국)은 한번 죽음을 못면한다
 綿山(면산)에 돌아드니 介子推(개자추)27의 무덤이요
 三江(삼강)의 성난 潮水(조수) 伍子胥(오자서)의 貞節(정절)이며
 汨羅水(역라수) 깊은 물은 屈三閭(굴삼려)28의 忠魂(충혼)이요
 말잘하는 蘇秦張儀(소진장의)29 六國諸侯(육국제후)들 다 친하되
 閻羅(염라)왕을 못친하여 杜鵑聲(두견성)30 紉雨中(세우중)의
 魂魄(혼백)조차 울어있다 信陵君(신릉군)31의 竊符矯命(절부교명)과
 孟嘗君(맹상군)32의 鷄鳴狗盜(계명구도)33 戰國時(전국시) 豪傑(호걸)이라
 三千食客(삼천식객) 어디두고 黃山細雨(황산세우) 깊은 골에
 一坏土(일배토)가 可憐(가련)하다 力拔山(역발산) 楚霸王(초패왕)34은
 天下將士(천하장사) 일렀으되 時不利(시불리) 騅不逝(추불서)35라
 八千兵(팔천병) 흩어지니 虞美人(우미인) 손목잡고
 눈물로 하직하며 烏江風浪(오강풍랑) 愁雲中(수운중)에
 七十餘戰(칠십여전) 可笑(가소)롭다 運籌帷幄(운주유악)36 張子房(장자방)37과
 東南風(동남풍) 빌던 諸葛孔明(제갈공명)38은 天文地理(천문지리) 萬古造化(만고조화)를
 풀었으되 절통하다 한번 죽음 못면하고
 可馬遷(사마천)39 韓退之(한퇴지)40라 李太白(이태백)41 杜子美(두자미)42는
 第一文章(제일문장) 일렀으되 長生不死(장생불사) 못하였고
 獨行千里(독행천리) 關雲長(관운장)43은 名振天下(명진천하)44 하였어라
 거룩하다 明燭達朝(명촉달조)45 千秋大節(천추대절)46 뿐이로다
 長板英雄(장판영웅) 張益德(장익덕)47은 范疆(범강)48손에 죽단말가
 괴 많다 魏王曹操(위왕조조)49 唐突(당돌)50하다 吳王孫權(오왕손권)51
 三分天下(삼분천하) 紛二中(분이중)에 너도 또한 英雄(영웅)이라
 銅雀台(동작대) 右頭城(우두성)에 靈魂(영혼)이 자취없고
 富春山(부춘산) 돌아드니 嚴子陵(엄자릉)52 간곳없고
 赤壁江(적벽강) 굽어보니 蘇子瞻(소자침)53 어디간고
 晉處士(진처사) 陶淵明(도연명)54은 집터만 남아 있고
 金谷(금곡)의 石崇(석송)55이는 富者中(부자중)의 으뜸이되
 一生一死(일생일사) 限定(한정)있어 돈으로 못 살아내고
 越西施(월서시)56 楊貴妃(양귀비)57와 王昭君(왕소군)58 虞美人(우미인)59은
 先千年(선천년) 後千年(후천년)의 萬古絕色(만고절색)60 일렀으되
 玉態花容(옥태화용) 61고운 얼굴 塵土中(진토중)에 묻혀 있어
 秋雨梧桐(추우오동) 葉落時(낙엽시)62의 靈魂(영혼)이 슬피 울며
 八百年(팔백년) 彭祖壽(팽조수)63와 三千甲子(삼천갑자) 東方朔(동방삭)64은
 彼一時(피일시) 此一時(차일시)라 죽어지면 그만이요
 安期生(안기생)65 赤松子(적송자)66는 東海上(동해상) 神仙(신선)이라

귀로만 들었지 누구도 못본지라

天地(천지)도 開闢(개벽)하고 日月(일월)도 晦明(회명)67커든

하물며 우리人生(인생) 한번 죽음 할 수 없다

春花紅葉(춘화홍엽) 落時(낙시)68에 歲月(세월)도 덧없도다

時和年豐(시화연풍)69 이런 때에 아니놀고 무엇하리

朝鮮三百(조선삼백) 二十八州(이십팔주) 간곳마다 太平(태평)이라

돌고 돌아보세

求忠臣於(구충신어) 孝子之門(효자지문)70 教忠孝(교충효) 無二致(무이치)71 이니라

避色(피색)을 如避讎(여피수)72하고 避風(피풍)을 如避箭(여피전)73하라

懲憤(징분)을 如故人(여고인)74하고 窒慾(질욕)을 如防水(여방수)75하라

如此則禍(여차즉화) 不及身(불급신)76하니라

[각주]

- 1) 天無烈風(천무열풍) 淫雨(음우) : 하늘에는 사나운 바람과 굶은 비가 없고,
- 2) 海不揚波(해불양파) : 바다에는 물결이 일지 않아 잔잔함.
- 3) 我烝民(아증민) : 우리 모든 백성.
- 4) 挾彈飛鷹(협탄비응) : 탄환을 끼고 매를 날림.
- 5) 擊壤歌(격양가) : 풍년이 들어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노래.
- 6) 更少年(갱소년) : 다시 소년으로 돌아감.
- 7) 蒼海一粟(창해일속) : 넓고 큰 바다 속의 좁쌀 한 알이라는 뜻으로, 아주 많거나 넓은 것 가운데 있는 매우 하찮고 작은 것을 이르는 말.
- 8) 憂樂中分(우락중분) 未百年(미백년) : 근심과 즐거움을 나뉘도 백년이 못됨.
- 9) 少年行樂(소년행락) 片時春(편시춘) : 소년시절의 즐거움은 봄날 잠깐이요.
- 10) 堯舜禹湯(요순우탕) : 태평시절의 임금.
- 11) 文武周公(문무주공) : 주나라를 세운 문왕, 무왕, 주공을 말함.
- 12) 孔孟顏曾(공맹안증) : 공자, 맹자, 안자, 증자를 말함.
- 13) 程朱夫子(정주부자) : 정호(程顥), 정이(程頤), 주희(朱熹)를 말함.
- 14) 么麼(요마) : 하루살이.
- 15) 侍衛(시위) : 임금이나 우두머리를 모시어 호위함.
- 16) 頓絕(돈절) : 편지나 소식이 끊어짐.
- 17) 齊景公(제경공) : 제나라 경공을 말함.
- 18) 比干(비간) : 은(殷)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紂王)의 숙부.공자는 『논어(論語)』 <미자편(微子篇)>에서 미자(微子), 기자(箕子), 비간(比干)을 은나라의 세 어진 이라고 말함.
- 19) 伯夷叔齊(백이숙제) : 은나라의 충신 백이와 숙제를 아울러 이르는 말.
- 20) 採薇曲(채미곡) : 백이와 숙제와 고사리를 캐어 먹었다는 내용을 읊은 노래.
- 21) 黃石公(황석공) : 중국(中國) 진(秦)나라 말엽(末葉)의 은사(隱士)이자 병법가(兵法家).장양(張良)에게 병서(兵書)를 전(傳)하여 주었다는 노인(老人)으로, 장양은 이 병서를 읽고 한(漢)나라 고조(高祖)의 천하평정을 도왔다 함
- 22) 姜太公(강태공) : 중국 주(周)나라 초기의 정치가로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멸하고 천하를 평정하였음.
- 23) 司馬穰苴(사마양저) : 전완의 묘예(苗裔)로 안영(安嬰)의 추천을 받아 제나라의 대부에 오른 인물. 후일 대사마(大司馬) 벼슬에 올랐다 하여 이름을 사마양저로 바꿨음.
- 24) 孫臏(손빈) :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의 무장으로 위나라 군사와 싸워 크게 이겼으며, 조나라를 도와 위나라 군사를 격파하였음.
- 25) 吳起(오기) : 중국 전국시대의 병법가.증자(曾子)에게 배우고 노(魯)나라, 위(魏)나라에서 벼슬한 뒤에 초(楚)나라에 가서 도왕(悼王)의 재상이 되어 법치적 개혁을 추진하였음.
- 26) 戰必勝功必取(전필승공필취) : 전쟁에는 반드시 이겨 공을 반드시 취하고.
- 27) 介子推(개자추) : 중국 춘추시대의 은인(隱人)으로 진(晉)나라 문공(文公)이 공자(公子)일 때 19년 동안 함께 망명 생활을 하며 고생하였으나, 문공이 귀국하여 왕이 된 후 자신을 멀리하자 면산(綿山)에 들어가 숨어 살았음.문공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추가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그 산에 불을 질렀으나, 나

오지 않고 타 죽었다고 함.

28) 屈三閭(굴삼려) :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의 정치가, 시인인 굴원(屈原)을 말함.초사(楚辭)라고 하는 운문 형식을 처음으로 시작하였으며, 모함을 입어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다가 마침내 물에 빠져 죽었음.

29) 蘇秦張儀(소진장의) : 소진은 중국 전국시대의 유세가(遊說家)로 진(秦)에 대항하여 산둥(山東)의 6국인 연(燕), 조(趙), 한(韓), 위(魏), 제(齊), 초(楚)의 합종(合從)을 설득하여 성공했으며, 장의는 중국 전국시대 위(魏)나라의 정치가로 귀곡 선생(鬼谷先生)에게서 종횡(縱橫)의 술책을 배우고, 뒤에 진(秦)나라의 재상이 되어 연횡책을 6국에 유세(遊說)하여 열국으로 하여금 진나라에 복종하도록 힘썼음.

30) 杜鵑聲(두견성) : 두견이 울음 소리.

31) 信陵君(신릉군) : 중국 전국시대 위(魏)나라의 정치가로 문하에 식객 3천 명을 거느렸다고 함.제나라의 맹상군, 초나라의 춘신군, 조(趙)나라의 평창군(平昌君)과 함께 전국(戰國) 말기의 사군(四君)으로 꼽힘.

32) 孟嘗君(맹상군) :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의 재상으로 초나라의 춘신군, 조나라의 평원군, 위나라의 신릉군과 더불어 전국(戰國) 말기 사군(四君)의 한 사람으로 부름.

33) 鷄鳴狗盜(계명구도) : 비굴하게 남을 속이는 하찮은 재주 또는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을 이르는 말. 중국 제나라의 맹상군이 진(秦)나라 소왕(昭王)에게 죽게 되었을 때, 식객(食客) 가운데 개를 가장하여 남의 물건을 잘 훔치는 사람과 닭의 울음소리를 잘 흉내 내는 사람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빠져나왔다는 데서 유래함.

34) 楚霸王(초패왕) : 중국 진(秦)나라 말기의 무장인 항우(項羽)를 말함.숙부 항량(項梁)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유방(劉邦)과 협력하여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스스로 서초(西楚)의 패왕(霸王)이 되었으나, 그 후 유방과 패권을 다투다가 해하(垓下)에서 포위되어 자살하였음.

35) 時不利(시불리) 騶不逝(추불서) : 때가 불리하니 오추마도 나아가지 않는구나.항우(項羽)의 <해하가(垓下歌)>에 나오는 구절.

36) 運籌帷幄(운주유악) : 전략전술을 세우고 치밀하게 계획을 짤.

37) 張子房(장자방) : 중국 한나라의 건국 공신인 장양(張良)을 말함.한나라 고조를 도와 천하를 통일하여, 소하·한신과 함께 한나라 창업의 삼걸(三傑)로 일컬음.

38) 諸葛孔明(제갈공명) :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정치가인 제갈량(諸葛亮)을 말함.뛰어난 군사 전략가로 유비를 도와 오(吳)나라와 연합하여 조조(曹操)의 위(魏)나라 군사를 대파하고, 파촉(巴蜀)을 얻어 촉한을 세웠음.유비가 죽은 후에 무향후(武鄉侯)로서 남방의 만족(蠻族)을 정벌하고, 위나라 사마의와 대전 중에 병사하였음.

39) 可馬遷(사마천) : 중국 전한(前漢)의 역사가로 기원전 104년에 공손경(公孫卿)과 함께 태초력(太初曆)을 제정하여 후세 역법의 기초를 세웠으며, 역사책 『사기』를 완성하였음.

40) 韓退之(한퇴지) : 중국 당나라의 문인·정치가인 한유(韓愈)를 말함.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사륙변려문(四六駢儷文)을 비판하고 고문(古文)을 주장하였음.

41) 李太白(이태백) : 중국 당나라의 시인인 이백(李白)을 말함.짚어서 여러 나라에 만유(漫遊)하고, 뒤에 출사(出仕)하였으나 안사의 난으로 유배되는 등 불우한 만년을 보냈으며, 칠언절구에 특히 뛰어난 이별과 자연을 제재로 한 작품을 많이 남겼음.

42) 杜子美(두자미) :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인 두보(杜甫)를 말함.울시에 뛰어났으며, 긴밀하고 엄격한

구성, 사실적 묘사 수법 따위로 인간의 슬픔을 노래하였음.'시성(詩聖)'으로 불리며, 이백(李白)과 함께 중국의 최고 시인으로 꼽힘.

43) 關雲長(관운장) :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무장인 관우(關羽)를 말함.장비, 유비와 의형제를 맺고 적 벽전에서 조조의 군대를 격파하는 등 많은 공을 세웠으며, 뒤에 위나라와 오나라의 동맹군에게 패한 뒤 살해되었음.

44) 名振天下(명진천하) : 이름을 천하에 떨침.

45) 明燭達朝(명촉달조) : 촛불을 밝혀 밤을 지새움.

46) 千秋大節(천추대절) : 세월이 흘러도 길이 빛날 지조와 절개.

47) 張益德(장익덕) :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무장인 장비(張飛)를 말함.유비(劉備), 관우(關羽)와 함께 도원(桃園)에서 결의하고 왕인 유비를 항상 섬겼던 용장(勇將)으로, 후에 파서(巴西) 태수가 되었음.

48) 范疆(범강) : 삼국지의 중심인물인 장비(張飛)의 신하로 장비를 죽인 사람.

49) 魏王曹操(위왕조조) : 삼국시대 위나라의 시조(始祖).황건의 난을 평정하여 공을 세우고 동탁(董卓)을 벤 후 실권을 장악하였으며, 적벽(赤壁)대전에서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에게 크게 패하여 중국이 삼분된 후 216년에 위왕(魏王)이 되었음.권모술수에 능하고 시문을 잘하였음.

50) 唐突(당돌) : 꺼리거나 어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이 울차고 다부짐.

51) 吳王孫權(오왕손권) :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초대 황제로 손견(孫堅)의 아들.유비와 더불어 조조를 적벽에서 무찌르고 위와 제휴하여 제위에 올랐다.연호를 황룡(黃龍)이라 하고, 도읍을 건업(建業)으로 옮겨서 중국 남방 일대를 다스렸음.

52) 嚴子陵(엄자릉) :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 때의 은사(隱士)

53) 蘇子瞻(소자침) : 중국 북송의 문인인 소동파(蘇東坡)를 말하며, 당송 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구법파(舊法派)의 대표자로 서화에도 능하였음.

54) 陶淵明(도연명) : 중국 동진(東晉) 때의 시인으로.오류선생(五柳先生)이라고도 부름.팽택현(彭澤縣)의 현령이 되었으나, 80여 일 뒤에 를 남기고 관직에서 물러나 귀향하였음.자연을 노래한 시가 많으며, 당나라 이후 육조(六朝) 최고의 시인이라 부름.

55) 석송(石崇) : 중국 서진(西晉)의 부호(富豪)로 형주(荊州) 자사(刺史)를 지냈으며, 항해와 무역으로 큰 부자가 되었음.

56) 越西施(월서시) : 중국 춘추시대 월나라의 미인.오나라에 패한 월나라 왕 구천이 서시를 부처에게 보내어 부처가 그 용모에 빠져 있는 사이에 오나라를 멸망시켰음.

57) 楊貴妃(양귀비) : 중국 당나라 현종(玄宗)의 비로 춤과 음악에 뛰어나고 총명하여 현종의 총애를 받았으나 안사의 난 때 살해당하였음.

58) 王昭君(왕소군) : 중국 전한 원제(元帝)의 후궁으로 기원전 33년 흉노와의 화친 정책으로 흉노의 호한야선우(呼韓邪單于)와 정략결혼 하였으나 자살하였음.

59) 우미인(虞美人) : 중국 진(秦)나라 말기 항우의 총희(寵姬).절세의 미인으로 항우가 한(漢)나라 유방에게 해하에서 포위되었을 때 자살하였다고 함.

60) 萬古絕色(만고절색) : 세상에 비길 데 없이 뛰어난 미인.

61) 玉態花容(옥태화용) : 옥같은 자태와 꽃다운 얼굴.

62) 秋雨梧桐(추우오동) 葉落時(낙엽시) : 가을비에 오동나무잎이 떨어질 때.

63) 彭祖壽(팽조수) : 팔백살까지 오래 살았다고 하는 팽조를 말함.

- 64) 동방삭(東方朔) : 중국 전한(前漢)의 사람으로 해학(諧謔)·변설(辯舌)·직간(直諫)으로 이름이 났으며, 속설에 서왕모(西王母)의 복숭아를 훔쳐 먹어 장수하였다 하여 삼천갑자 동방삭이라고 부름.
- 65) 安期生(안기생) : 천세옹(千歲翁)이라고 부르는 신선.
- 66) 赤松子(적송자) : 신농씨(神農氏) 시절에 비를 다스렸다는 신선.
- 67) 晦明(회명) : 어두움과 밝음.
- 68) 春花紅葉(춘화홍엽) 落時(낙시) : 봄꽃이 붉게 피어 떨어질 때.
- 69) 時和年豐(시화연풍) : 나라가 태평하고 풍년이 듦.
- 70) 求忠臣於(구충신어) 孝子之門(효자지문) : 충신은 효자집안에서 구할 수 있으며.
- 71) 教忠孝(교충효) 無二致(무이치) : 충과 효는 두 이치 아니라고 교육하며.
- 72) 避色(피색)을 如避讎(여피수) : 색피하기를 원수 피하기처럼 하며.
- 73) 避風(피풍)을 如避箭(여피전) : 바람 피하기를 화살 피하기처럼 하며.
- 74) 懲憤(징분)을 如救火(여구화) : 분함 누르기를 불 끄듯이 하며. 원문에는 '여고인(如故人)'이라 했으나 오기로 보임.
- 75) 窒慾(질욕)을 如防水(여방수) : 욕심 누르기를 물막듯이 하며.
- 76) 如此則禍(여차즉화) 不及身(불급신) : 이와같이 하면 화는 곧 내게 미치지 않으리라.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